

배화교회

주보 제 2020-11호

배화여자대학교 부속 대학교회

2020.3.15



사순절 제 3 주

가난한 이들의 기도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누가복음 6장 20절)

세상은 가난한 우리를 멸시하며, 실패한 인생이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억울한 일을 고스란히 겪었고 많이 아프고 춥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가난한 이를 환대하겠습니다.
주머니가 빈 것에 집착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을 기뻐하겠습니다.
숨거나 비겁해지는 대신에 도둑질 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더불어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겠습니다.

가난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소망하는 자라고 불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가난을 해결하라고 요청하는데,
정작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고 물으십니다.
주님, 힘들고 아파하는 이들의 편에 서겠습니다.
가난한 우리를 가난한 우리가 서로 돕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배우고, 우리의 행실에 공감한다면,
그 때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돌아섰다고 기뻐하겠습니다.

* 예배 전에 조금 일찍 오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입례송 *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예배로의 부름 * 다같이

인도자 :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외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회 중 : 나곤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다함께 :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찬양 * 다같이 (인도: 강영건 집사)

풀은 마르고 / 온 땅의 주인 + 아름다우신

공동기도 다같이

기도송 다같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 주여 일하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아-멘 아-멘

교회소식 김은철 목사

봉헌 배화교회의 기도 2

1. 빛으로 오신 주와 동행하며 사람됨으로 주변 세상을 밝히는 촛불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나타내소서
2. 교회로 모인 성도의 사명- 진실한 사랑 배우게 하사 주님의 한몸 이루어가며 성숙의 기쁨 알게하소서
3. 길 잃은 세상 생명 잃은 땅에 예수가 주신 복음 전하세 산위의 등불 희망의 소리 주님의 교회 이루소서

봉헌기도 다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성별하여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것처럼, 매일의 삶도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칭찬받을 만한 인생 되도록 복을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 가짐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가만히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 누가복음 17장 20-26절

20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22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23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24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25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26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 김은철 목사 노아의 때, 인자의 때

파송찬양 지극히 높으신 주

축도 김은철 목사

*공지사항

1. 배화교회는 코로나19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유치부, 초등부도 집에서 영상예배를 드릴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문의: 각 부서 전도사)
2. 배화교회는 대구지역의 취약계층을 돕는 일에 헌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구호헌금을 드리시는 분들은 계좌이체 시 이름 옆에 "구호"라고 표기해주세요. 농협 317 0018 9846 21 (예금주: 배화여자대학교부속대학교회)
3. <중보기도 요청> 윤영미 집사님이 오늘 부천카톨릭병원에 입원해서 내일 치아수술을 받습니다. 기도부탁드립니다.

공동기도문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 감염병의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여러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병의 고통으로, 사회적 고립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더욱 고통받는 이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길을 보내주십시오.

이번 위기를 통해 모든 인류가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위기를 극복하는 사랑의 능력을 믿고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나라와 나라가, 이웃과 이웃이 원망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대하여 모든 이들의 생명을 위해 협력하게 해 주십시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단한 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감싸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좁은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여러 유혹과 갈등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길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져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먼저 마음을 열도록 도와주시고, 매일 마주하는 자연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도 누리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